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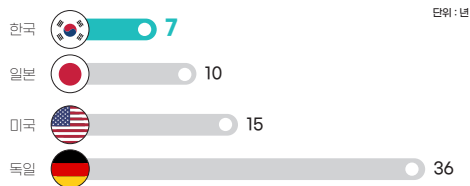
인구구조 변화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



인구구조 변화

급속한 고령화 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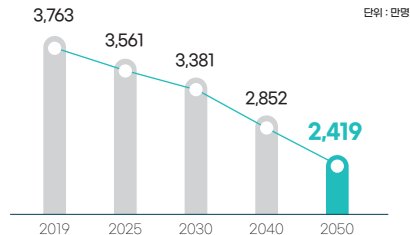
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
'25년에 초고령사회^(20.6%) 진입 예상



* 고령사회 ▶ 초고령사회 도달연수 * 출처 : 2022 고령자 통계, 통계청

생산연령 인구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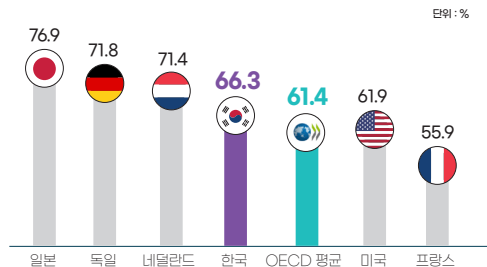
생산연령인구^(15~64세)는 '19년부터 감소
'50년에는 '19년 대비 1/3 이상 감소 전망



노동시장 환경 변화

낮은 55~64세 고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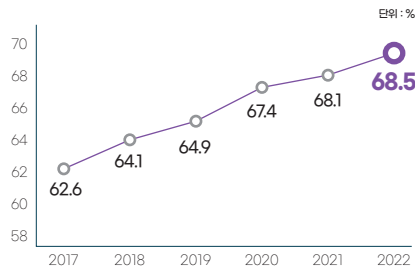
55~64세 고용률은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, 일본 등 대비 낮은 편



* 출처 : 2021년, OECD(stats.OECD.org)

장래 근로 희망 비율 증가

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^(65~79세) 증가



* 출처 :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, 통계청

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

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

- ✔ 계속고용장려금 확대
* ('22년) 108억원, 3천명 → ('23년) 268억원, 8천명
- ✔ 퇴직자 재고용 실태 및 정년 현황 조사 실시
- ✔ 계속고용, 세대상생 등 기업의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

- ✔ 상생임금위원회 설치('23년 2월)
*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, 정책 권고 등
- ✔ 임금체계 구축 패키지 신설 ('23년 1,200건)
- 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('23년 말)

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('23년 2분기)
- ✔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('23년 말)
- ✔ 계속고용 관련 국민 인식조사 ('23년)

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



체계적 재취업 지원

- ✔ 고용복지+센터 중심의
맞춤형 재취업지원서비스
* 고용센터내 「중장년 전담창구」 설치
→ 유형에 맞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
- ✔ 중장년내일센터 개편 →
산업·지역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- ✔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도록
누리집 개편(중장년워크넷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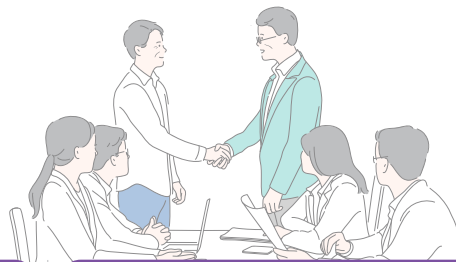
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

- ✔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
직업훈련 개선
- ✔ 폴리텍 '신중년 특화과정'
(‘23년 2,500명)과 중장년내일센
터 연계 강화
↳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 등을 포함,
「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」 마련(‘23년 上)

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

- 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
적정 수준 유지
(‘23년 60.8만개, 전년동일)
- ✔ 사회서비스형·민간형
노인 일자리 확대
(‘22년 23.7만개 → ‘23년 27.5만개)

일자리·창업 기회 확대



일자리 기회 확대

- ✔ 「일자리 컨설팅-훈련-채용지원」을 패키지로 지원(*23년 360개소)
- ✔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폭 확대
* (‘22년) 54억원 → (‘23년) 558억원
- ✔ 산업 전환과정에서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「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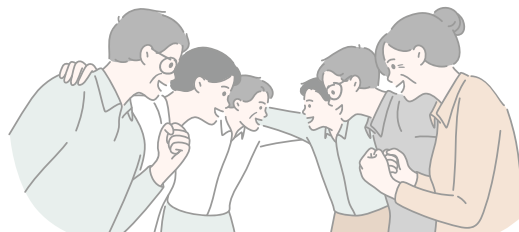
사회기여 활동 지원 활성화

- ✔ 퇴직 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자리 제공
지역사회 :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
기업 : 기술닥터제, ICT 혁신기업 멘토링
학교 등 :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, 과학기술인 지식 멘토링
- ✔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‘중장년 워크넷’을 통해 안내

기술창업 지원 강화

- ✔ 민간기업에서 전문기술을 축적한 중장년을 기술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발굴 프로그램 운영
- ✔ 준비된 창업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등 제공
 * 출·퇴근길 창업 프로그램
- ✔ 중장년의 창업 재도전 지원을 위해 재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
 * 23년 : 30개사, 기업당 최대 1.5억원

고용안전망 강화



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
- ✓ 중소·중견기업의 자율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신설('23년)
 - * 300~999인 기업이 사업 컨설팅 참여 후, 재취업지원 서비스 도입 시 비용 일부 지원
- ✓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 및 운영기준 상향 추진('24년)

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

- ✓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'취업취약계층 고령자' 별도 정의하여 지원
 - * '23년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 추진
- ✓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검토
 - * 해외사례, 고용보험 재정상황, 타 사회보장제도와 정합성,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 종합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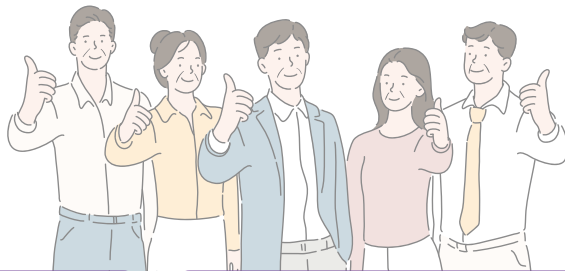
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
- ✓ 퇴직연금 의무화, 연금성 강화 등을 담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3년 下)
- ✓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도출(~'23년 3월), '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' 수립(~'23년 10월)
- ✓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('23년 10월)

안전한 일터 조성

- ✓ 중소기업, 건설·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강화
 -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「가칭 안전 일터 패키지」 지원('24년~)
- ✓ 고령 근로자의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 지원
 - 「가칭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」('23년)

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



연령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현

- ✔ 연령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
- ✔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, 취업·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'직무능력은행제' 구축('23년 下)
- ✔ 근로자가 쉽게 연령차별 구제를 신청하고,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
 - *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신설 추진

고령자 통계 등 개선

- 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, 통계구간 세분화('24년)
 - * (現) 70세 이상 → (改) 70~74세, 75세 이상
- ✔ 주된 일자리 중심의 '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'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 추진
- ✔ 2차 베이비부머(64~76년생)의 은퇴, 재취업 등 고용 심층분석 (고용부 고령자 패널조사, '23년)

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

- 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,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 추진('23년)
 - *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정의 신설
 - *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정비
 - *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